

세 줄기 가느다란 희망의 불빛 - 중미 3개국에서 좌파가 동력을 얻다¹⁾

알브레히트 코쉬츠크, 아호 란스

최근 5개월 동안 중미 정치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다.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에서 대선이 실시되었는데(총선과 동시에 실시된 국가도 있다), 새로 결성된 좌파 정당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선전하였다. 이러한 선거결과가 극보수 과두 엘리트가 지배하는 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새 정치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진보세력의 성장을 조심스럽게 낙관해볼 수 있다.

전통적인 양당체제가 종말을 고한 코스타리카

약 100년 전부터 코스타리카에서는 치열한 선거전이 없었다. 결선투표에²⁾ 진출한 대선 후보가 사퇴한 사례도 없었다. 이번에 사퇴한 주인공은 조니 아라야로 오랫동안 산 호세 시장을 지냈으며,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 1) 이 글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저자의 허락을 얻어 번역하였다. 저자와 원제는 다음과 같다. Albrecht Koschützke y Hajo Lanz, "Tres tenues luces de esperanza. Las fuerzas de izquierda cobran impulso en tres países centroamericanos."(2014년 5월)
출처: <http://www.nuso.org/upload/articulos/PERSPECTIVA%20Koschuetzke%20Lanz.pdf>
- 2) 코스타리카에서 대통령선거의 당선 기준 득표율은 40%이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후보가 없을 때는 득표율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하 각주는 모두 역자 주이다.

(Socialist International)의 회원정당인 민족해방당 후보였다. 아라야의 사퇴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타리카 국민에게는 무명 인사나 다름없던 시민행동당의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후보가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14년 4월 6일 결선투표에서 77%의 득표율로 승리한 것이다.

2014년 코스타리카 대통령선거 결과³⁾

정당	대통령후보	선거결과
시민행동당(PAC: Partido Acción Ciudadana Alianza Patriótica)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Luis Guillermo Solís)	30%
		77%(결선투표)
민족해방당(PLN: Partido Liberación Nacional)	조니 아라야 몬헤 (Johnny Araya Monge)	29%
		22%(결선투표)
확대전선당(PFA: Partido Frente Amplio)	호세 마리아 비알타 (José María Villalta)	17%
자유운동당(PML: Partido Movimiento Libertario)	오토 게바라 구트 (Otto Guevara Guth)	11%
기독교사회당(PUSC: Partido Unidad Social Cristiana)	로돌포 피자 로카포르트 (Rodolfo Piza Rocafort)	6%
기타		2%

선거운동 기간에 정권교체의 열망이 드러났다. 민족해방당은 이미 두 번 집권했기 때문에⁴⁾ ‘재집권 반대’는 코스타리카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 고려할 사항은 2002년 선거와 2006년 선거에서 두 개의 좌파정당이 원내에 진출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양당제체가 종말을 고한 것이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수십년 동안 보수적 사민주의 성향의 민족해방당과 기독교사회당이 돌아가며 정권을 차지했다. 시민행동당(중도좌파)과⁵⁾ 2004년에 창당한 확대전선당(좌파)이 선거에서 꾸준히 선전함으로써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3) 이 표와 아래의 표는 모두 옮긴이가 삽입하였다.

4) 오스카르 아리아스(Oscar Arias, 재임: 2006년~2010년) 정부와 라우라 친치야(Laura Chinchilla, 재임: 2010년~2014년) 정부를 가리킨다.

5) 시민행동당은 2002년 대선에 오토 솔리스 파야스(Ottón Solís Fallas) 후보를 출마시켜 26%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으며, 총선에서도 국회의원 57석 가운데 14석을 얻어 원내 제3당이 되었다.

수많은 남녀 유권자들은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투표에서는 매우 현실적으로 행동했다.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확대전선당이 아니라 온건한 시민행동당을 선택했다. 말하자면, 평탄한 우회로를 택하여 새 출발한 것이다. 대학교에서 조용히 역사를 가르치던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는 학계를 벗어나 정치에 입문했고, 이번 선거에서는 중도 성향을 자처함으로써 수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좌파 진보정당인 시민행동당과 확대전선당은 총 57석을 뽑는 총선에 서도 입지를 굳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적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먼저 확대전선당은 9석을 확보함으로써 원내 제3당이 되었다. 시민행동당도 14석을 얻었으나 18석을 차지하여 원내 제1당이 된 민족해방당에게는 역부족이었다. 기독교사회당은 두 명의 전임 대통령이 연루된 비리 사건으로⁶⁾ 입지가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석을 확보했다. 자유운동당은 지난 선거보다 5석이 줄어든 4석을 얻었다. 나머지 5석은 기독교 성향의 군소정당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시민행동당과 확대전선당의 의석을 합해도 과반에 못 미치므로 사안에 따라서 다른 정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2014년 코스타리카 총선 결과

정당	의석수
민족해방당	18
시민행동당	13
확대전선당	9
기독교사회당	8
자유운동당	4
코스타리카 혁신당(Renovación Costarricense)	2
기타 정당	3
합계	57

이번 코스타리카의 선거 결과를 놓고 좌회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전통적인 정당, 즉 민족해방당과 기독교사회당의 약화를 의미한다.

6) 라파엘 안헬 칼데론(Rafael Ángel Calderón) 전 대통령은 2009년 부패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미겔 안헬 로드리게스 에체베리아(Miguel Ángel Rodríguez Echeverría) 전 대통령은 2011년 부패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경향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코스타리카 유권자들이 이전 선거보다 좌로 기운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한층 더 젊어지고, 비판적이고, 유식하고, 도시적이 된 것이다. 또 코스타리카의 민주체제와 사회적 성취를 지켜내고자 하고, 경제적 성공과 계층상승을 열망한 것이다.

유권자들은 기독교당과 민족해방당 정권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 사건을 보면서 나름의 결론을 이끌어냈다. 코스타리카의 사회적 불평등이(중남미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최근 10년 동안 훨씬 악화되었는데, 민족해방당의 책임이 크다) 투표함을 통해서 심판받았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는 우파의 실권이 아니라 ‘중도에 정착’한 것이다.

경제적 성공을 이어가고자 하는 파나마

파나마의 거대 정당이자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회원정당인 민주혁명당은 2009년 선거에서 뜻밖에 참패를 당한 후 여태껏 당내 대립과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후안 카를로스 나바로를 대선 후보로 선출하고도 계파간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민주혁명당은 2014년 5월 4일 대선을 앞두고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의석도 25석을 얻었으나 9명이 입각함으로써 결국 16석으로 줄어들었다. 민주혁명당의 의석 감소는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잡음의 결과이자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전임 대통령 리카르도 마르티네이(Ricardo Martinelli)의 권력욕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에 대한 마르티네이 전임 대통령과 민주변화당의 적의 그리고 명확한 사회정치 프로그램이 부재한 민주혁명당에 대한 실망이 호기로 작용하여 정치적 성향의 새로운 단체가 여럿 출현했으나 정치에 직접 발을 담그지는 않았다. 이런 단체 가운데 하나로 출발하여 2013년 정당으로

7) 마르티네이는 민주변화당 소속이나 2009년 대선에서는 민주변화당, 파나마당, 민주공화자 유운동당, 애국동맹당이 연합한 변화동맹(Alianza por el cambio)의 후보로 출마하여 임기 5년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인정받은 민주주의 확대전선은, 파나마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노동단체인 독립노조전국연합(CONUSI: Confederación Nacional de Unidad Sindical Independiente) 의장인 헤나로 로페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선거 몇 달 전, 파나마 유권자들은 마르티네이 대통령의 전제적이고 독재적인 정치 스타일에 대한 반감보다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환호하는 것 같았다. 민주혁명당의 나바로 후보가 불과 몇 주 만에 지지율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마르티네이의 문하생인 호세 도밍고 아리아스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여겼다. 그렇지만 여론조사에서 항상 3위에 머물던 후보가 이변을 일으켰다. 그 후보가 현직 부통령이자 사업가이며 파나마당의 당수인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로, 약 40%의 득표율로 민주변화당의 후보(32%)와 민주혁명당의 후보(27%)를 따돌렸다. 이리하여 비록 보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지만 적어도 마르티네이식의 정치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써 변화를 추구하되 지나친 대가는 치르고 싶지 않은 유권자의 열망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2014년 파나마 대통령선거 결과

정당	대통령후보	득표율
파나마당(PAN: Partido Panameñista)과 민중당(PP: Partido Popular) 연합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Juan Carlos Varela)	39.1%
민주변화당(CD: Cambio Democrático)과 민주공화자유운동(MOLIRENA: Movimiento Liberal Republicano Nacionalista) 연합	호세 도밍고 아리아스 (José Domingo Arias)	31.4%
민주혁명당(PRD: Partido Revolucionario Democrático)	후안 카를로스 나바로 (Juan Carlos Navarro)	28.1%
민주주의 확대전선(FAD: Frente Amplio por la Democracia)	헤나로 로페스 (Genaro López)	0.6%
무소속 후보 3명		0.9%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

2007년 2월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FSLN: Frente Sandinista de Liberación Nacional)이 다시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니카라과에서는 이른바 ‘혁명 2단계’가 시작되었다. “기독교, 사회주의, 연대 정부”(gobierno

cristiano, socialista y solidario)라는 새로운 정치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의 여파로, 2009년 10월 니카라과 최고법원은 대통령의 연임을 제한한 헌법 147조가 무효라고 정략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법치국가와 관련하여 격렬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아무튼 다니엘 오르테가(Daniel Ortega)는 2011년 대선에 출마하여 62.4%의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또 의회에서 과반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산디니스타 정부는 2013년 말에 헌법 51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2007년부터 실행해온 정부 모델을⁸⁾ 사후적으로 합법화하였다. 2014년 1월 말에는 예상대로 대다수 의원이 이 헌법개정안에 찬성했다. 이렇게 오르테가 대통령은 의회, 사법부, 선관위를 통제함으로써 권력을 확고하게 다졌다. 헌법 147조 개정은 격렬한 비판을 야기했다. 대통령 연임 제한 조항이 삭제되어서 이제는 선거에서 승리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행정명령을 공포할 권한을 갖게 되었고, 군과 경찰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부에서 공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헌법 개정으로 오르테가는 전제적인 정권을 정당화하고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권력을 휘두르던 과거 독재자들의 시대를⁹⁾ 떠올리게 만들고 있다.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회원 정당이자 좌파 포퓰리즘 경향을 띄고 있지만, 혁명의 리더이던 오르테가가 장악하여 당내 민주주의가 결여되어 있고, 위계질서 또한 엄격하다. 또 정부 정책은 특정 이해관계로 누더기가 되기 일쑤인 까닭에 민주적이고 투명한 국정운영의 모델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야당이 세를 불리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오르테가가 베네수엘라의 지원을 받아 공무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너스와 교육정책 덕분에 아직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에서 갈라져 나온 산디니스타혁신운동(MRS:

8) “기독교, 사회주의, 연대 정부” 모델을 가리킨다. 《산디니즘의 목소리》(La Voz del Sandinismo)라는 신문의 2012년 4월 1일자 기사(“Modelo Cristiano, Socialista y Solidario tuvo éxito en los últimos cinco años”)에 따르면, 이 모델은 “초국적기업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모델”의 대안이다 (<http://www.lavozdelsandinismo.com/nicaragua/2012-01-04/modelo-cristiano-socialista-y-solidario-tuvo-exito-en-los-ultimos-cinco-anos/>)

9) 1979년 산디니스타 반군이 무너뜨린 소모사일가의 독재 시절(1936년~1979년)을 가리킨다.



온두라스 대선 후보, 히오마라 카스트로의 유세 장면

Movimiento de Renovación Sandinista)은 아직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정책의 입안과 결정에 영향을 행사할만한 시민사회단체도 찾아보기 힘들다.

야당다운 야당이 원내에 진출한 온두라스

온두라스에서는 2013년 11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부통령 3명, 국회의원 128명, 시장 298명을 선출했다.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2009년 6월 군부는, 정치계와 경제계에 포진한 전통 동맹세력과 국가 기관 및 언론기관의 지지를 받아 자유당의 마누엘 셀라야 로살레스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체포하여 국외로 추방했다. 그때 광범위하고 다채로운 반쿠데타운동인 민중저항전선(FNRP: Frente Nacional de Resistencia Popular)이 형성되었고, 여기에서 2012년 자유재건당이 출범했다. 2011년 5

월 귀국한 셀라야가 당수가 되었고, 부인 히오마라 카스트로는 2013년 선거에 대통령후보로 출마했다. 지지자들은 승리를 과신하고 있었지만 자유재건당은 대선 득표율 28.8%로 2위를 차지했다. 총선에서는 37석을 얻음으로써 원내 제2당이 되었다(원내 제1당은 여당인 국민당으로,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는 대선에서 36.9%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총선에서는 이전의 73석을 훨씬 밑도는 48석을 얻었다). 이리하여 100년 가까이 지속되던 국민당과 자유당(중도 우파로 대선 득표율은 20.3%로 3위를 차지했으며, 총선에서는 27석을 획득했다)의 양당체제가 무너졌다.

2013년 온두라스 대통령선거 결과

정당	대통령후보	득표율
국민당(PN: Partido Nacional)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Juan Orlando Hernández)	36.89%
자유재건당(Libre: Partido Libertad y Refundación)	히오마라 카스트로 (Xiomara Castro)	28.78%
자유당(PL: Partido Liberal)	마우리시오 비예다 (Mauricio Villeda)	20.30%
반부패당(PAC: Partido Anticorrupción)	살바도르 나스라야 (Salvador Nasralla)	13.43%
애국동맹당(PAP: Partido Alianza Patriótica)	로메오 바스케스 벨라스케스 (Romeo Vásquez Velásquez)	0.20%
기독민주당(PDC: Partido Demócrata Cristiano)	오를레 솔리스 (Orle Solís)	0.17%
기타 정당		0.24%

2013년 온두라스 총선 결과

정당	의석수
국민당	48
자유재건당	37
자유당	27
반부패당	13
기독민주당	1
통합혁신당(PINU: Partido Innovación y Unidad)	1
민주통일당(UD: Unificación Democrática)	1
합계	128

자유재건당은 강력한 야당이자 원내 제2당이다. 그러나 이제는 진정한 정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셀라야는 출신으로 보면 자유당 사람인데, 쿠데타 이후에야 진보적 면모를 발견했고, 이제는 서둘러 진보적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자유재건당의 대선 공약은 ‘민주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 당이 다시 채택하여 정책 형태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조직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이제 자유재건당 당원은 당을 성공적인 야당으로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만 진보세력은 자유재건당에서 결정적인 준거점을 얻었다. 자유재건당은 사회운동의 산물인 만큼 페미니즘운동, 성적 소수자운동, 환경운동, 원주민 운동에 비중을 두었다. 또한 온두라스의 민주주의, 국회활동, 정치담론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유재건당 덕분에 조직적이고 진보적인 정치담론의 공간이 생길 것이고, 이는 다른 진보세력이 활용하게 될 것이다.

파라분도마르티민족해방전선이 계속 집권하게 된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선거에서는 파라분도마르티민족해방전선의 대선후보 살바도르 산체스 세렌은 현직 부통령이자 1980년대 게릴라의 마지막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인데, 3월 9일 결선투표에서 6,364표(0.22%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우파 국민공화연맹당의 후보이자 산 살바도르 전 시장이던 노르만 키하노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2014년 엘살바도르 대선 결과

정당	대통령후보자	득표율
파라분도마르티민족해방전선(FMLN: Frente Farabundo Martí para la Liberación Nacional)	살바도르 산체스 세렌 (Salvador Sánchez Cerén)	48.9%
		50.1%(결선투표)
국민공화연맹당(ARENA: Alianza Republicana Nacionalista)	노르만 키하노 (Norman Quijano)	38.9%
		49.9%(결선투표)
통합(Unidad)	엘리아스 안토니오 사카 (Eliás Antonio Saca)	11%
엘살바도르진보당(PSP: Partido Salvadoreño)	레네 로드리게스 우르타도	0.42%



엘살바도르 대통령에 취임한 살바도르 산체스 세렌

2014년 2월 2일에 실시된 1차투표에서 산체스는 10%포인트 차이로 승리했으나 과반 득표에는 약 1.1%포인트가 부족했다. 키하노는 약 39%를 얻었으며, 득표율 3위는 국민공화연맹당의 전임 대통령 안토니오 사카인데,¹⁰⁾ ‘엘살바도르 신우파’를 표방하는 3개 정당의 통합(Unidad)¹¹⁾ 후보로 출마하여 11.4%를 얻었다.

엘살바도르는 1992년 평화협정을 맺고 내전을 종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좌파와 우파로 극명하게 나뉘져 있다.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과두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며,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전은 매우 혼탁하며, 선동적인 책략이 난무한다. 1989년부터 2009년까지 집권한 국민공화연맹당은 최근 좌파의 집권을 용납할 수 없는 사건으로 여긴다. 이미 100년 동안 엘살바도르는 실질적으로 과두세력의 나라였

10) 사카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집권했으며, 국민공화연맹당 소속이었다.

11) 이 연합에 참여한 3개 정당은 국민통합대동맹(GANA: Gran Alianza por la Unidad Nacional), 국민협정당(PCN: Partido de Concertación Nacional), 기독교사회당(PDC: Partido Demócrata Cristiano)이다.

기 때문이다.

국민공화연맹당의 전임 대통령 사카는 재임기간에 어떻게 재산을 18배나 불렀는지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성공적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돌렸다. 여당 후보인 산체스 세렌은 최근 3년 동안 보건과 사회정책 즉 여성 정책을 성공적으로 개혁했으며, 이미 시작한 개혁을 완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개혁이 성공한 것은 확실하다. 농촌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혜택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게릴라로 활동하던 파라분도마르티민족해방전선은 2009년 언론인 마우리시오 푸네스(Mauricio Funes)를 후보로 내세워 집권했다. 푸네스의 중도정치는 파라분도마르티민족해방전선 내에서도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푸네스는 진정한 좌파 대통령이었으며, 파라분도마르티민족해방전선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정책을 펼쳤다. 이번 선거에서 박빙으로 승리한 파라분도마르티민족해방전선은 계속 개혁을 추진해야만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 문제, 사회 구조적 문제 외에도 범죄단체로 인한 치안문제를 해결하고, 살인율과 범죄율을 감소시켜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국회의원을 사고파는 과테말라

과테말라는 온두라스나 엘살바도르와는 다르게 그 어떤 정치적 변화도 없다. 원주민의 소외와 관련해서는 두 나라와 유사하면서도 훨씬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

휘발성 정당의 난립은 현재 국회(158석)에 진출한 정당이 15개나 된다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들 가운데 몇몇 정당은 겨우 1석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선거용으로 급조된 정당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진다. 최근 20년 동안 60여개의 정당이 생겨났다. 현재도 20여개의 정당이 있으며, 그 가운데는 정강조차 마련하지 못한 정당도 있다.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장 또한 휘발성이다. ‘철새 의원’(기회만 나면 이 정당에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며, 심지어는 한 임기에도 몇 차례가 옮겨

다니는 경우도 있다)은 과테말라에서 민주선거와 그 결과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이다. 현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최근 2년 새에 당적을 옮겼다. 공공연하게 의석의 가격을 흥정하기도 하는데, 보통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에 거래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권자는 정말 합리적으로 처신한다. 투표일에 식사와 차량을 제공하고 후보자 얼굴이 찍힌 티셔츠와 음식물 한 봉지를 주는 후보에게 표를 판다.

이러한 정치문화, 미디어 권력을 장악한 과두세력의 사법부와 행정부 및 경제계에 대한 영향력은, 전 여당인 희망국민연합(UNE: Unidad Nacional de la Esperanza)의¹²⁾ 희망사항, 즉 사회민주주의 면모를 갖추고 중도좌파 정당으로 변신하면 과테말라 권력 구조도 변할 것이라는 기대조차 무산시켜버렸다.

결론

니라라과는 유일 정당의 독재국가가 되어버렸고, 과테말라에서는 범죄폭력, 정치폭력, 경제폭력이 진보 정치와 민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시도를 매년 좌절시키고 있다. 반면에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에서 최근 실시된 선거에서는 참여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희망을 엿볼 수 있다. 이 중미 3개국의 선거 결과는 좌회전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를 사유재산처럼 여기고 있는 과두세력은 이제라도 정치적 반대세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 유권자는 반동적 엘리트의 각종 비리, 불의, 무능에 대한 대안으로 야당에게 표를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 세력이 패배한 주요 원인은, 평화정착에도 실패하고, 법치국가의 틀을 유지하지도 못했으며, 최소한의 정치적 윤리마저도 저버렸기 때문이다. 무능한 탓에 국가와 사회를 근대화시키지도 못하고, 불평등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대처 방안이 부재하며,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도

12) 희망국민연합은 전임 대통령 알바로 콜롬(Alvaro Colom, 2008년~2012년 재임)이 소속된 당이다.

없고, 중산층과 청년층에게 희망도 제시하지 못한 것이 바로 수십 년 동안 집권하던 우파 정당이 신망을 잃게 된 원인이다. 현재 중미의 상황을 보면, 빈번한 사회동원, 활발한 의사소통, 교육수준의 향상이라는 요소와 보수적이고 농촌적인 전통, 토호세력(caudillo), 반동적인 성직자의 활동이라는 요소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미인은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이전 세대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진보세력이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조직적인 대규모 토론도 없으며, 새로운 정치문화가 부각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코스타리카의 자유운동당과 확대전선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파라분도마르티민족해방전선이 전통적인 선거 연합 대신에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단순한 희망 이상이 되어 정치 담론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는 기다려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증거는 실제 정책, 그리고 시민사회, 노동계, 청년층, 여성층, 원주민과의 관계, 사회정의, 법치국가가 될 것인데, 이는 좌파 정당의 전형적인 의제이기도 하다. 이제 몇 달 후면 어느 나라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 희망이 과장된 것인지 드러날 것이다. 진보주의 정치권의 노력은 최근 들어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박병규 옮김]

알브레히트 코쉬츠크(Albrecht Koschützke) — 엘살바도르의 산 살바도르 소재 ‘중미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대표

아호 란스(Hajo Lanz) — 엘살바도르의 산 살바도르 소재 ‘중미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대표

옮긴이 박병규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